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588장 ..... 다같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2장 15절 ..... 인도자

### 설 교 ..... “단순한 삶”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지진으로 고통 받는 튀르키예(터키)에 긍휼을 베푸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자족하는 삶

빌립보서 4:11-13

전 세계 부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다. 세계 부의 45.9%를 인류 0.7%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 것이지만, OECD 국가 중 행복지수는 37개국 중 35위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매사에 불안하고 불만이고 만족이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덕의 기술』에서 제일 원칙으로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고 했다. 행복하려면 세속적인 욕망을 좇기보다 집착과 욕망을 통제하고 타인에게 공정하며 쾌락을 절제하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속을 욕망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사람은 자기 누울 자리만큼만 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 소돔에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아내도 잃고 자기 몸만 건졌다.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5:10)라고 했다. 당신에게 돈은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돈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다. 내가 재물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물이 나를 지배한다. 나쁘게 변질시키는 돈의 위력은 선하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대비된다. 자족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설령 소득이 그보다 더 많아진다고 해도 그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 ‘기쁨의 서신’으로 통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11절). “자족”은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으로 본래 헬라 철학에서 온 말이다. 만족(satisfaction)과 자족(self-sufficiency)은 다르다. 자족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가능하다. 자족은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줄이면 가능하다. 자기 절제가 들어간다. 이것은 배워야 된다. 훈련되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 자족은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게 한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12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 자족은 단순성과도 관계된다. 단순성은 금욕주의는 아니다. 금욕주의는 비천에 처할 때에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단순성은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만족할 줄 안다. 단순성이 없으면 맘몬에게 굴복하거나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면적 단순성의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자족의 영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지위, 신분, 소유, 명예, 향락에 대한 영광스러운 무관심이 밀려온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13절). 자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경건을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물질적 축복, 금전적 이득, 세속적 성공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한다. 물질적인 번영을 달성해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 자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